



# 다양한 맛의 축제 식빵의 매력

## 당찬 맛집을 찾아서

### <208> 제주시 용담동 '식빵가게'

팔·초코·콘치즈·크림치즈·크랜베리 등 다양한 조합의 큐브식빵 '골라먹는 재미' 원하는 디자인·문구 넣은 수제 케이크도

네모난 하얀 식빵에 색이 입혀져 눈이 즐겁다. 밤, 팔, 치즈, 초콜릿, 크랜베리, 스위트콘, 건포도, 녹차 등 식빵 안을 가득 채운 부재료가 먹는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 '맛'을 극대화하는 것. '식빵가게' 주인장의 승부수다.

제주시 용담동에 위치한 작은 동네 빵집 '식빵가게'는 한재혁·백수연씨 부부가 4년째 운영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직접 가게를 운영해보자는 꿈을 이룬 것이다.

30대에 창업에 도전하면서 소위 '목 좋은 곳'을

찾을 여력은 없었다. 큰 욕심 없이 짧은 열정으로 시작해 '맛'과 서비스에 공을 들였다니 어느새 단골 손님이 제법 생겼다. 빵과 커피를 즐길 수 있어 나름 '동네 사랑방'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게 동네 주민 단골부터 블로그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들도 종종 찾아온다고 한다.

'식빵가게'의 주 메뉴는 상호명처럼 식빵이다. 굳이 식빵을 내세운 데는 거창한 이유는 없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빵인데다, 식빵을 좋아하는 부부의 취향이 더해졌다. 한 입 사이즈를 찾다 보니 큐브식빵을 선택하게 됐다.

작고 아담한 가게 안 판매대 위에는 우유식빵부터 밤식빵, 콘치즈식빵, 팔앙금식빵, 치즈식빵, 크림치즈 크랜베리식빵, 시나몬 건포도식빵, 마늘식빵, 초코식빵, 말차 팔앙금식빵 등 다양한 종류의 큐브식빵이 진열돼 있다. 식빵가게지만 스크, 러스크, 피자 토스트 등 서브메뉴가 마련돼 있어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가끔 단골 주민들이 원하는 빵을 만들어 판매대에 올려놓기도 한다. 가격은 대부분 3000원대다.

종류는 다양했지만 수는 많지 않다. 코로나19의 여파다. 백수연씨는 "예전엔 오전과 오후에 빵을

구웠는데, 요즘은 오전에만 구워드 충분하다"고 했다. 한재혁씨가 "저녁엔 사람들이 잘 안다녀서 낮에 완판을 하지 못하면 빵이 남는다"며 아쉬움을 털어놓는다.

손님은 줄었지만 맛과 위생은 더 철저히 신경쓴다. 예민한 시기만큼 고객의 발길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맛'뿐이라는 생각에서다.

메뉴 개발도 계속되고 있다. 녹차, 맥물, 비트즙 식빵 등 여러가지 재료를 조합해 신제품 개발에 도전중이다.

아이디어는 고객들에게서도 나온다. 시제품 시식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재료를 빼고 더하며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게 목표다.

주문 제작되는 수제 케이크도 고객 사이에서 인기다. 그때그때 주문 받아 최대한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과 문구를 넣어 세상에 하나뿐인 케이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다.

매장에 가면 저렴한 가격에 원두커피(2300원)도 즐길 수 있다. 월-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문을 열며 일요일은 휴무다.

오른기자 eioh@ihalla.com

## 영화관

### 결혼이라는 이야기

올해는 아버지의 칠순이다. 연초에 계획된 부모님의 칠순 동반 부부 해외 여행은 여러가지 이유로 취소됐다. 그런데 70이라는 숫자는 그냥 지나치기엔 무겁고 애뜻해서 해가 가기 전에 계획한 곳이 아니더라도 기대한 시간은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살고 있는 곳과 그리 멀지 않은 바다로 두 분은 이박 삼일 간의 여행을 떠나셨다. 거의 일 년여 만에 부모님의 집에 홀로 남겨진 나는 기념 여행의 빈 공간에 남겨져 숫자들에 대해 생각했다. 내가 올해로 마흔 하나이니 부모님의 이번 여행은 결혼 40주년 기념 여행이기도 했다. 마흔 번의 가을을 함께 보낸다는 것, 일흔 번의 생일을 맞은 반려자와 이박 삼일 간의 여행을 같이 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공교롭게도 그 생각의 시간 동안 나는 노아 바움백 감독의 영화 '결혼 이야기'를 보았다. 지난 해 이맘때쯤 개봉한 작품으로 올 초 아카데미 영화제 작품상을 비롯 남부주연상과 각본상 등 주요 부문에 후보 지명된 작품이다. 국내에도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두 배우 아담 드라이버와 스칼렛 요한슨이 결혼의 끝을 마주한 부부를 연기했다.

영화 '결혼 이야기'는 정말 많은 양의 대사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어떤 장면들은 자막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정도다. 물론 그 버거움을 필사를 하고 싶은 정도로 생생하고 리드미컬한 이 영화의 뛰어난 각본에 대한 만족의 방증이기도 하다. '결혼 이야기'가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수상한 '기생충'의 가장 강력한 경쟁 작품이었다고 하는데 충분히 수긍이 간다. 게다가 아담 드라이버와 스칼렛 요한슨 그리고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로라 던 등 배우들은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그 대사들을 생활의 공간 안에 안착시켰다.

영화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관객의 귀가를 쟁쟁 올리는 두 주인공의 대화들은 부부 싸움이라는 매일의 전쟁을 아프고 슬프게 들려주고 보여준다. 행복을 꿈꾸



영화 '결혼 이야기'

며 시작한 부부라는 관계는 스스로의 크기와 상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스포츠 경기에 가까운 인내력 대결로 이어지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애정과 책임의 존재는 이혼이라는 과정 앞에서는 무엇보다 커다란 감정의 대상이 된다. 잘 헤어질 수 있다는 말은 비문이고 잘 헤어졌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결혼 후에도 그리고 이혼 후에도 각자와 서로의 삶은 지속된다. 부부라는 이름에는 엄마와 아빠라는 책임이 더해지고 전 남편과 전 아내라는 호명 그리고 친구도 애인도 아닌 지나간 누군가가 된다는 쓸쓸함 또한 얹혀진다. 부부의 세계란 결혼이라는 약속의 의식 이후 둘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함께한다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 모든 일에는 이혼이라는 이별의 과정이 담겨 있기도 하다. 다르게 닳아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끌린 관계의 시작은 그 끝을 향해 서로를 데우고 그을리며 이어진다. 결혼이라는 무수한 이야기들의 시작은 많은 이들의 삶에서 비롯된다.

즐거움 칠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나의 부모님은 돌아오던 차 안에서 다투고 말았다고 한다. 어쩌면 이렇게 변하는 것이 없냐고 서로에 대해 불평하던 둘은 돌아온 집 안에서는 역시 집이 최고라며 각자의 일을 다시 시작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손자들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잘 이부자리를 챙기는 각자를 위한 서로의 시간은 그렇게 또 이어졌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제주솔라에너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열정을 찾습니다

## 2020년 하반기 사원모집

모집기간 2020년 8월 ~ 채용시까지 수시 모집

지원방법 워크넷/이메일/방문/우편으로 지원서류 제출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및 A/S 기술자

-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팀단위 협력 파트너(하도급) 별도 상담

### 모집직종

### 전기 및 토목 분야 기술자

- 공사/설계/공무/인허가 경력자 우대
- 해당분야 자격증/경력수첩 보유자 우대



### 주택용 태양광 보조신청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추가접수중
- 주택용 태양광 3kW 공사비 50% 보조
- 자부담금 251만원
- 선정방식 : 선착순 (예산소진시 종료)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